



전라북도 동부권4H본부 한마음대회 남원시 개최

남원시 춘향골 실내체육관에서 30일, 제11회 전라북도 동부권4H본부 한마음 대회가 개최됐다.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6개 시군이 해마다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였으나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다가 올해 700여명의 회원들과 60여명의 내빈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남원시4-H본부 강성원 회장의 대회선언을 시작으로 지·덕·노·체 4H이념을 되새기고 회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4H 서약 제창을 실시하였으며, 농촌발전에 헌신한 각 시군 회원 12명에게 한국4-H본부 중앙 표창과 4H 전라북도본부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남원시 4-H본부는 학교4H 회원 중 학생 6명을 선발하여 각 장학금 2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하였으며, 범세계적 실천과제인 탄소중립실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농업농촌의 핵심인 4H 인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서자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농업농촌과 넉넉한 삶을 위한 OX 게임을 실시하고 남원 청년4H(회장 안효성)회원들이 준비한 압화 소주잔 만들기와 달고나 체험을 운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장, 지구대·파출소 치안현장 방문

남원경찰서는 김진형 서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치안향상을 위해 지구대 및 파출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치안현장에서 열심히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형 서장은 각 지구대·파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 예방활동, 우수사례 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 한돈 1000kg 기탁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지부장 강정우)가 30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돈 1,000kg(450만원 상당)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강정우 지부장은 "불가항상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힘들어 하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군 홍보대사에 배우 김응수씨 위촉

황인홍 군수, 위촉장 수여... "무주군민들의 자존심 살리기 위해 적극 홍보할 것"

왕성한 작품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배우 김응수씨(61)가 무주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30일 군수실에서 배우 김응수씨에게 무주군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무주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씨는 "살아있는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며 "무주군의 위상과 명예에 군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김응수씨가 무주군의 홍보대사로 수락해 주셔서 오히려 영광이다"며 "무주군의 홍보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군민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의 홍보대사를 발굴, 위촉했다. 홍보대사 위촉은 군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무주군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인데 더불어 가 마포대교는 무너졌나 영화 타짜서 건달 두목역 광철용 역으로 국민적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대표작은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을 비롯해 강력3반 공작 베테랑 신라의 달밤 색다른 그녀 추노 강패수



업 등이 있다. 군은 무주를 자주 방문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넓은 인맥 그리고 무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홍보대사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와의 인연은 지난 2015년 무주를 대차리에서 열린 소이나루 작은음악회에서 총감독을 맡는 등 무주와의 인연이 있다. 무주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배우 김응수씨의 홍보대사 활동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생태환경 해치지 않는 탐조대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열려

고요한 경향이 시작됐다.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종의 자연 상태의 새를 관찰하는 팀이 우승한다. 새를 보려면 침묵을 지켜야 한다. 이들과 함께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이자 '새소리'의 향연이 펼쳐졌다. 도요물떼새들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고창갯벌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뜰새머리갈매기, 딱황새,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매년 철새 2만~3만 마리가 찾아온다. 갯벌세계유산보전본부에 도전중인 고창갯벌에서 동시에 많은 새들을 관찰하는 전국 대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가 지난 26~28일 성황리에 열렸다. 문화재청, 전라북도, 고창군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고, 고창갯벌 서식조류를 탐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 동호회, 친구 등 전국 각지에서 총 32팀, 12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질때까지 탐벌 탐조 활동을 통해 갯벌에 서식하는 조류를 촬영하고, 갯벌 키퍼스 온라인 기록 시스템에 조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이경신 군의회 부의장이 참석한 시상식



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베스트프즈상, 희귀새 상 등 12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탐조대회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고창갯벌 일원에 서식하는 조류 분포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고창군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PP) 서식지 네트워크 가입에 따라 더그왓킨스 대표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거리 상담 진행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중추기관으로서 방학 중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도동동 소재 롯데슈퍼 부근에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기관 소개와 더불어 지속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추석 명절 맞아 이웃 위한 기탁 이어져

남원지역에서는 추석을 맞아 이웃을 위한 기탁이 이어지며 명절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9일 노암동사무소(동장 임점숙)에는 청소방역전문업체 치움과 카페전문점 고삼에 김 100박스를 기탁, 이 물품(김)은 경로당, 관내 밀반찬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노암동은 그동안 삼계탕, 의자, 빵, 백미 등(환가액 약 654만 원)을 기탁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서지호)에는 29일, 산내면 입석리 삼화선원 여강(興康) 주지스님이 추석맞이 백미(10kg) 40포(116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히며, 삼화선원의 여강 주지스님은 8년째 설과 추석 명절때마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부해 왔다고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공덕면, 추석맞이 공동묘지 정비 구슬땀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명준)에서는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동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관내 공동묘지 예초작업 등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 정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관내 공동묘지(8개소/75,807㎡)에 대한 묘지 진입로 정비와 잡목 제거를 실시하고, 관리가 소홀한 무연고 등 묘지 벌초 작업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성묘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추석 명절 고향 방문 자제로 인해 적적하고 쓸쓸한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묘를 마칠 수 있도록 무성하게 자란 공동묘지 진입로 주변 수목 정리와 잡초 등을 제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성금 200만원 전달

남원의용소방대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 이미숙)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활동 성금 200만원을 남원시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성금은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가 남원시청을 방문해 하태욱 부시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추석 명절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사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신지사 010-6645-9935 익산지사 66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